

# 더민주 잠룡들 민생행보 차별화 전략

### 문재인, 민심행보에 주안점 이재정, 토크콘서트로 세 확보 박원순, 9일 강연 예정

더불어민주당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잠룡)들의 움직임이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전북 방문 목적을 위한 '정치적 동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민심행보에 주안점을 둔 반면에 이재정 성남시장은 토크 콘서트를 통한 지지세력 확보를, 박원순 서울 시장은 강연을 통한 활동 외연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그동안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됐지만 친노반노 갈등으로 인해 대표직을 내놓고 사실상 접거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나 그는 추석 연휴 이후 싱크탱크 구성 작업을 본격화하며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일 쌀값 폭락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제시를 방문한데 이어 당일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단들과 비공개 만찬을 갖는 등 당 인맥 인사들을 만났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쌀값 안정 문제를 김제시를 찾은 추미애 당대표와 비슷한 일정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 언론에서 그의 행보가 주목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재정 성남시장은 지난달 23일 전주를 방문, 주진우 시시인 기자와 함께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고발한다'라는 토크콘서트에서 대선 출마의지와 담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제출

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과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국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도내 정치권은 당시 이 시장의 방문을 두고 전북 내 우호 세력 확보와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이 시장은 내년 대선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박원순 시장은 오는 9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전주중부교회 비전센터에서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초청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 박 시장은 한반도의 최우선 과제가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참석자들과 나눌 예정이다.

박 시장의 방문이 강연 목적이라고 하지만 야권의 차기 주자로 꼽히는 만큼 대선 행보에 대한 관심이 오간다. /신광영 기자

## 정운천 '태양광 농가발전소' 제안

### 농가당 1.8억 투자 월 116만원 상당 소득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대한 에너지 정책 개선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정운천 국회의원(새누리당, 전주)은 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신개념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선보였다.

정 의원은 언급한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10만 농가에서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월 116만원 상당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농가당 1억 8,000만원을 들이면 연간 1조 4,000억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에서 1,000억 수준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사업들에 비해 훨씬 규모는 크지만, 정부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금융기관의 수익모델로서 장기적 수익이 보장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사업이란 설명이다.

정 의원은 "농가발전소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을 돈으로 바꿔주게 되고, 보조금으로 놓린 농가에 사회 안전망으로서 자생적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협약 실천을 위한 국가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같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전이 보완해야 될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생산한 전기에 대한 전력량 접속 보장이야.

또한 사업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전기판매가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SMP와 REC에 대한 고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농가에 자생소득원으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월116만원의 연금형대 소득보장이 이뤄진다면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신광영 기자

## 김중회, 공유수면 관리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당 김중회 의원(김제·부안)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수입의 80%를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의 골짜기채취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수입의 50%는 해양수산부가, 나머지 50%는 해당 허가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단체의 수입이 되고 있는 반면, 연안의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전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김의원은 "EEZ 내의 골짜기채취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연접지역의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다른 지역 어업인에 비하여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사용료의 50%를 국가귀속분으로 하는 것은 지원의 형평성, 피해에 대한 탄력적 대응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EEZ의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귀속분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고,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비용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징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 어민들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해 주어야 한다"고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말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 "LH,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각 등 서민주거안정 포기"

### 안호영 의원, "용적률 활용 여유부지 매각시 녹지공간·편의시설 축소돼 삶의 질 하락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감축을 명분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지 1만3,515호를 매각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LH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마련한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안'에 따라 임대부지 22만6,000호, 분양부지 18만7,000호 등 미착공 공공주택부지 41만3,000호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2015년에만 15만5,000호, 2016년 3만5,000호 등 총 19만호의 미착공 공공주택부지를 해소했다.

문제는 LH가 미착공 공공주택부지 해소 과정에서 당초 임대주택 부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원칙을 정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부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부지도 민간에 매각한 것.

실제로 LH는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 1만3,515호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LH가 2004~2014년 사업승인한 임대주택 12만9,000호에 대한 활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의 용적률 활용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계획에 따른 평균 용적률은 173%이나 사업승인시 적용된 평균 용적률은 152%로 21%포인트 차이가 났다.

안호영 의원은 "LH의 계획대로 용적률을 활용해 여유부지를 매각할 경우 공원 등 녹지공간과 편의시설이 축소되어 입주민

의 삶의 질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임대주택 부지 자체는 매각하지 않고 용적률을 활용해 여유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임대주택 부지 매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LH의 고유 기능이다. LH가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여유부지 매각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부지 민간매각과 용적률을 활용한 여유부지 매각이라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 도선관위, 외부강사 2명 공모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주권인식 함양 및 선거참여를 위해 외부강사를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명이다. 지원자격은 정당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으로 대학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 각종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강사면 가능하다.

외부강사를 희망하는 자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해 도선관위 홍보포 또는 이메일(rsjang@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선관위 홈페이지(http://fb.nec.go.kr) 또는 도선관위 홍보포(063-239-2350)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NAVER 정음 구절초 축제

내비게이션 주소 : 전북 정음시 산내면 대죽리 571

# 정음 구절초 축제

## 제11회

### 2016. 10. 1.(토) ~ 10. 9.(일)

#### 구절초 테마공원

주최 | 정음시 | 주관 | 정음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 | 후원 | 한국수자원공사(섬진강댐관리단), NH농협은행 정음시지부, 정음산림조합

●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 2016. 10. 1.(토) / 오후 4시  
출연진 : 조항조, 최진희 등 (선정 : 전주MBC MC 김차동)

● 구절초 꽃발음대회 : 2016. 10. 1.(토) ~ 10. 9.(일) 매일2회 공연 / 오후1시, 4시

일자	시간	출연진	비고	일자	시간	출연진	비고
10. 1(토)	13:00~14:00	그룹 로라	통가타 라이브	10. 6(토)	13:00~14:00	서버스밴 리본	백제로 저글링 서커스 공연
	16:00~17:00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16:00~17:00	그룹 다섯소리	통가타 라이브
10. 2(일)	13:00~14:00	가수 미정희	초청가수 공연	10. 7(일)	13:00~14:00	나니네	유전 크로스오버 국악
	16:00~17:00	그룹 플러스	어쿠스틱 밴드		16:00~17:00	가수 김연숙	초청가수 공연
10. 3(월)	13:00~14:00	가수 미정희	통가타 라이브	10. 8(월)	13:00~14:00	가수 수니킴	통가타 라이브
	16:00~17:00	주미 명상발	피어노, 바이올린 연주		16:00~17:00	그룹 The Present	하모니 공연
10. 4(화)	13:00~14:00	그룹 투가이즈 (two guys)	통가타 라이브	10. 9(일)	13:00~14:00	하모니	오케리나 독주&합주 공연
	16:00~17:00	가수 오산영	통가타 라이브		16:00~17:00	수하린	초청가수 공연

● 버스킹(길거리) 공연 : 2016. 10. 1. ~ 10. 9. (상시)  
- 장소 : 만남의 광장, 코스모스 정관지 등 주요 공간 4개소  
- 출연 : 수하린 등 인기 통가타 가수 공연

\* 참가일정은 사정이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